

시그니처 있는 아침



바람의 기원

-김명철(1963~)

향나무 밑둥치가 두 갈래로 갈라진 틈새에서
백송 한 그루가 자라고 있습니다
(...)
경건과 황홀과 우울한 표정을 지나
당신의 몸과 내 뿌리의 전쟁
(...)
당신을 알고부터 난
불가항력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그러고 살지만, 생판 다른 남들이 만나
한 가계를 꾸린다는 것은 얼마나 장엄한 일인가.
‘불가항력’ 같은 차이를 극복하고 그 사이에
‘백송 한 그루’ 같은 자식을 꽃처럼 키워내는 것.
그 ‘경건과 황홀과 우울’ 때문에 우리는 때로
위대하다. 사랑은 두 사람의 ‘전쟁’을 넘어
스스로 무너져 주는 것이다. 그게 사랑의 법칙이고
‘기원’이다. 김명철 시집 『바람의 기원』 중에서.
(오만석 시인·단국대 교수)

경제 살리기의 고리는 역시 기업투자다



사공일의 글로벌 인사이트 Global Insights

경제정책도 시대적 산물로 봐야 한다. 놀랍게도 정부가 직접 나서 개인소비를 조장하려는 정책적 의도에서 실시된 소위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이 그 예다.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의 원조인 미국에서는 개별 유통업체들이 제철이 지난 제품들의 재고정리 차원에서 매년 추수감사절 직후 실시하는 행사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총소비 진작을 위한 거시경제 정책 수단으로서 정부가 직접 주도한 것이다. 그 성과를 떠나 앞으로 경제학 교과서에서 논의될 만한 과격적 시도다.

물론 소비는 중요하다. 모든 경제정책의 궁극적 목적은 국민 모두의 복지 증진에 있으며, 이는 개개인의 소비를 통해 이뤄지기 때문이다. 게다가 현재 우리의 민간소비는 국내총생산(GDP)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에 있다. 따라서 경기 부양을 위한 총수요 관리 측면에서도 총소비 진작은 중요한 것이다(70% 수준의 미국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마침 올해 노벨 경제학상은 개인 소비행태와 거시경제의 관계를 규명하는 데에 많은 실증적 연구를 통해 크게 기여한 미국 프린스턴대의 앵거스 디턴(Angus Deaton) 교수에게 수여됐다.

이러한 전문적인 소비이론과 실증분석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일부 대형 유통업체의 일시적 세일 행사가 경기활성화에 도움이 될 만큼 큰 거시경제적 총소비 진작 효과를 내게 될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다. 더욱이 현재 우리 가계의 부채비중은 걱정스러운 정도로 높다. 따라서 정부의 소비진작책이 가계부채 증가로 이어진다면 미래의 소비를 오히려 줄이게 될 수도 있다. 특히 머지않은 장래에 예상되는 미국 연준(Fed)의 금리 인상과 국제금리 상승은 가계부채 원리금 상환 부담을 늘리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꾸준한 소득증가가 불확실한 가운데 추진된 소비진작책은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부작용만 키울 수 있다. 1997~98년 환란 이후 ‘소비는 미덕’이라는 생각에서 비롯된 정부의 일부 시책이 몰고



일러스트=박용석

무리한 소비진작책은 한계 있고 부작용만 키울 수 있다 노동개혁과 좀비기업 정리로 투자환경 개선에 집중해야

온 2000년대 초의 소위 ‘카드 대란’과 그 후 유증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현재 시점에서 당면한 불경기를 극복하고 나아가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한 성장 잠재력 제고를 위한 경제 살리기 정책의 초점은 역시 기업투자에 맞춰질 수밖에 없다.

우리의 기업투자는 GDP 대비 거의 30%에 이른다. 따라서 기업투자 축진은 현재 우리 경제가 당면한 장단기 도전 즉 경기 회복과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일석이조(一石二鳥)의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GDP 대비 총투자율이 20% 내외 수준에 있는 미국과 독일 그리고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에 비취할 때 총투자율을 계속 높여나가는 것은 어려운 것이다.

그러나 질과 내용이 다른 투자는 계속 이어져야 한다. 특히 모든 산업의 디지털화와 소위 ‘산업 4.0’을 위한 투자는 크게 늘려나가야 한다. 또한 기업 연구개발(R&D) 투자

도 계속 늘려나가야 한다. 현재 스마트폰 시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급이 수요를 거의 창출하는 듯한 분야에서 시장 주도를 위한 R&D 투자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정책당국은 기업투자가 저조한 원인을 찾아 적절히 대처해 나가야 한다. 국내 기업투자 여건이 외국에 비해 불리한 것이 있다면 그것부터 고치는 것이 순서다. 상공회의소의 최근 조사 결과를 보면 기업의 국내 인력운용 면의 애로가 해외투자를 선호하게 하는 가장 큰 이유임을 알 수 있다. 세계화 시대에 해외투자를 늘려 나가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국내 투자환경이 나빠 밖으로 나간다면 그것은 큰 문제가 된다.

그래서 ‘노동개혁’이 중요한 것이다. 또한 고부가가치의 일자리 친화적 투자는 각종 서비스 분야에 걸쳐 가능한데, 사회·정치적 벽에 부딪혀 각종 규제가 해소되지 못

하고 있어 이 분야의 투자가 부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국회와 정치권은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가장 비정치적이고 이성적으로 차분히 해결해야 할 차세대 역사 교과서 문제를 정치 쟁점화하고 거기에 매몰돼 노동개혁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경제회생 관련 필요한 조치들은 뒷전으로 미뤄놓고 있어 안타깝다. 국제금리 상승을 눈앞에 둔 이 시점에서 더욱 시급히 추진돼야 할 많은 ‘좀비 기업’의 구조 조정을 위한 필요법·제도적 마련을 위한 조치도 예외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개혁에 대한 확고한 신념, 일관된 정책 추진 의지와 리더십으로 국민적 지지를 얻어 시급한 정책 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야 한다.

기업 특히 대기업들도 관련 중소기업과의 상생과 강력한 노조의 보호막 밖에 있는 대다수 근로자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일에 솔선수범해 이들과 국민 모두의 마음을 사는 일을 꾸준히 해나가야 한다. 이것이 정부의 기업투자 여건 개선에 대한 정치적 거부감을 줄이는 길이기도 하다.

본사고문·전 재무부 장관

2015년 11월호

세상을 보는 힘 월간중일

중일일보시사미디어 정기구독 신청 1588-5792 www.jmagazine.co.kr

황우여(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화약 안고 ‘역사전쟁’ 포연 속으로

한국사교과서 국정 전환 논쟁이 정국을 집어삼킬 태세다. 정계·학계 등 사회가 온통 격랑 속으로 빠져든다. 국면 돌파의 총대를 맨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어깨가 짓눌린다. 교과서 국정화 강행은 내년 총선에 출마하는 그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 최경호

또 다른 ‘태풍의 눈’ 대학구조개혁 평가 후폭풍 교수들의 분노, “교육부가 우릴 속였다”

패닉에 빠진 캠퍼스... 대학생들의 절규
“내 인생의 등급마저 추락하는 것 같아요” 김보현



정치이슈 친박계 장기집권플랜-이원집정부제 개헌론
‘반기문 대통령+친박계 총리가 박 대통령 퇴임 후 최적의 조합’ 박성현

친박-비박 권력투쟁의 숨은 ‘뇌관’ 여의도연구원
“여론조사 칼자루 잡는 자가 총선, 대선 거머쥔다” 박지현

문재인의 ‘부산친노’, 안희정의 ‘비부산친노’ 갈라서나 최경호
새정연 ‘부산 3選’ 조정태 의원의 격정토로
“문재인, 고향 내려와야 총선 희망 생긴다”

집단연구
정·관·재계의 ‘신주류’ 서울대 82학번 대해부 김포근
공동체의식으로 무장한 ‘관계형 엘리트’ 군단 떴다

글로벌 동향
일본은 왜 ‘한태평양 파트너십’에 올인했나 콘도 다이스케
“안보법안과 TPP는 중국 포위 쌍두마차”
‘일본통’ 송영선 전 국회의원의 집단적 자위권 분석
“자위대의 한반도 상륙은 지나친 상상력”

아토피 아파트에 면죄부 주는 국토부의 이상한 주택정책 유길용
‘공시송달’ 개인정보 인터넷에 무방비 노출... 지자체는 모르쇠
남성화장품 시장 1조원 시대... 색조화장 해야 상남자? 박재현

월간중일 年中 프로젝트
대한민국 근대화 100대 ‘경제문화재’ 탐구
“경제근대화 유산에는 기업가정신, 진취적 기상 총만하다” 한기홍
해외건설 ‘빅5’ 역사에서 배우는 기업가정신
“리스크 짊어지는 긍정적 사고가 혁신의 단초”

특별 인터뷰 메헤리티지재단 창립자 에드윈 풀너
“북·미평화협정 체결에 앞서 주한미군, 북핵문제 해결돼야” 박성현

스타 매력탐구
연예계의 ‘마녀’ 가수 서인영
“최고 신상은 클래식이라니깐” 박지현

“빨간 볼 사르고 재를 남기며...”
김정운의 이어령 프로젝트 (마지막회)
창조는 재미로 시작해 고독으로 끝나는 여행